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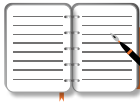
Story 10

박 * * 기계공학과 2021년 졸

(주)포스코 설비기술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주)포스코
- ▶ **직무** 설비기술
- ▶ **스펙** 학점: 4.03
토익: 820점 / OPIC: IH
- ▶ **인턴** (주)한국남부발전
- ▶ **공모전** 3차원 최소곡면 분리막 특허
- ▶ **봉사활동** 필리핀 봉사활동 273시간
- ▶ **아르바이트** 영어학원강사 및 기숙사 동장
- ▶ **기타** 학과 축구동아리(MSC)
- ▶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대학생활 스토리

제 꿈은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나라에서 기술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2학년 1학기까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 다.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보니 전공이 나에게 맞는가 생각이 들었고 제 꿈에 대한 막연한 방향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 전역을 한 후 우연치 않은 기회로 필리핀 봉사활동 및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한 현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학 습을 한 엔지니어는 아니었지만, 남들을 위해서 배전선을 달아주고 수도도 고쳐주던 배려심 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선망을 받던 그를 통해 저는 매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 다. '이타적인 행동과 남들을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선망 받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 다. 이런 그를 보며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이수하면서 나도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자는 꿈이 생겼고,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글로벌 엔지 니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저는 부족했던 2학년 1학기 과목이었던 고체역학 과목 및 기타과목 들을 필리핀에서 복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복학 시기가 다가왔을 때, 열심히 복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학습법으로 실력과 성적을 모두 잡을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보았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도중 동기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한울학습과 그린나라라는 활동은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갖 게 해주었습니다. 생각을 하며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소통하는 공부법으로 한울학습과 그린나라**를 진행하며, 수업시간 내용을 토대로 저와 함께 복학한 동기들과 서로 모르는 부분을 짚어주고 소통하고, 완전히 알 때까지 말로 반복해보는 학습법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는 정말 쉽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하 고 아는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하게끔 말로 반복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 당연하게 실력이 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남 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발표실력의 토대가 되었고, 언제 어디서 저에게 질문이 들어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남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특히 면 접을 보았을 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전공을 물어보는 직무면접을 실시하는데 각 질문들이 들어와도 항상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던 만큼 개념의 정의뿐만 아니라 저만의 느낌으로 설명을 하였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 습니다.

저는 후배들이 저와 같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같이 학습을 진행해 나간다면, 전공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면접에서 어떤 전공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도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의사소통의 기반인 영어를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토익이나 오픽 등 외국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저학년 때부터 준비해 왔으며 스피킹과 리스닝 등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혼자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을 1주일에 3시간씩 연습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경우 이공계열도 스피킹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입사지원 서류제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여러 공기업 역시 스피킹 취득자에 한해 필기전형 가산점을 주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도 이런 스피킹 역량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된다면 훗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4학년 1학기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수강하고, 기사필기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항상 제가 어떤 직무를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제 전공이 어떻게 쓰이는지 유튜브 동영상에 잘 나와 있었는데 항상 확인하며 관심 산업을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경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운이 좋게도 4학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생각하는 직무의 인턴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턴업무를 하며 엔지니어가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관 ‘안전, 효율’ 등의 덕목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된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취업이 많이 힘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스펙을 위한 스펙을 생각하게 되고, 더욱 더 많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시대에 전남대학교 학생으로서 취업준비를 경험한 취업준생으로서 정말 취업이 왜 힘든지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꿈이 이루어졌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8번의 공채 탈락이라는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는 순간이었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믿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유튜브 동영상, 면접학원, NCS 인터넷 강의 등 취업을 위해서 절박하게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그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방법들보다 저만의 방법을 찾았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꼭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들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포스코)

1. 본인의 회사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 사람을 위한 엔지니어

‘사람을 위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배수로를 고쳐주는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의 기술과 희생정신이 그를 누구보다도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행복함이 엔지니어가 진정하게 추구해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하며,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위해 설계하고 고쳐주며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 자신을 빛나게 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만난 이후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발산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과 국가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전공을 배워나가면서 기계 설비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일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많은 설비들을 관리하고 고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을 바로 세우고 경제발전 전에 이바지한 포스코에 들어가 설비들을 관리하며 국가의 성장에 한 축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배워온 지식에 엔지니어의 소양을 더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환경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서 오차 없는 꼼꼼한 설비를 진행하는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2.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엔지니어가 가져야 할 끈기

'끈기'란 식물의 뿌리가 척박한 토양을 헤쳐나가며 영양분이 공급될 때까지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뿌리처럼 영양분을 찾을 때까지 역경을 헤쳐나가며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엔지니어가 가질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캡스톤디자인과목을 수강하며, 저희 팀은 높은 용량을 가지는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용량이 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배터리의 분리막은 1um 사이즈의 다공성으로 제작하여야 했으며, 이 다공성은 기계적인 인장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고, 인장을 하기 위해서는 2차원 이상의 분리막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패라고 단언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의지를 다지며 **논문저널 사이트에서 논문을 찾아보고, 타 대학 교수님, 관련회사 등 컨택을 하고, 여러가지 기공을 만드는 방법들을 밤낮으로 찾아보며, 마침내 화학적으로 3차원적인 분리막을 제작하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일 제가 익숙한 분야를 선택했다면 손쉽게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몰입해서 새로운 분야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제 자신이 대견스럽습니다.

입사 후에도 경험을 통해서 향상시켰던 끈기라는 역량에 선배님들의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여 효율적인 설비진행을 할 수 있게끔 열린자세로 배우고 소통하겠습니다.

3.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과정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협력이라는 작은 글자가 가진 힘

2학년 1학기까지 학점이 매우 낮은 상태로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하니 전공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서 전공을 공부하면서 혼자 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낮았던 학점을 올리기 위해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복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필리핀 생활부터 복습을 하며 전공역량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혼자 공부하다 보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양도 많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따로 교수님께 물어보아도 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서서히 의욕도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실력과 성적을 모두 잡을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방법이 바로 스터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과 같이 기초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리 및 개념이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더 나은 학습법을 위해 서로 개념을 이해하며 모르는 부분을 짚어주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도하였고, 알 때까지 말로 반복해보고 칠판에 원리를 적어가며,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통하였습니다.

교수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학적 원리를 많이 알게 되었고, 전공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여 학점이 많이 올랐고, 기초교육원 상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협력'이라는 작은 글자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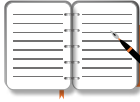
4. 최근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포스트프레임과 함께 하고 싶은 엔지니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습득하여 최적의 공정조건과 관리조건을 찾아 제어하는 '포스트프레임'이 포스코에 점점 도입되고 있습니다. 공정과정 중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실시간으로 제품의 품질 상태를 확인하면서 변수를 확인하며, 1시간 후의 상태까지 찾는 등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원인을 몰랐던 돌발문제 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몇몇 엔지니어들은 이 '포스트프레임'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프레임'에 비판적인 엔지니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포스트프레임'이 엔지니어가 공정처리 및 설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들을 통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될 수 있지만, 그 설비를 직접 관리하고, 판단하는 것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리 엔지니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 데이터를 통해 더 빨리 정확하게 수집하고 공장을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이 포스트프레임과 상생하며 포스코가 50년간 역경을 잘 헤쳐나올 수 있었듯이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사지원경험 (포스코 설비 기술)

가. 인·적성 검사 후기

저는 PAT가 인적성시험 중에서도 특히 난이도가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PAT 문제집 뿐만 아니라 빠른 문제풀이를 위해 비타민 및 NCS 기본서를 구매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PAT 시험을 보면서 느낀 문제체감은 언어영역의 경우 NCS 기본서 난이도 정도였으며, 수리영역 역시 NCS 기본서의 문제해결능력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NCS보다 시간상으로 더욱 촉박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관리가 매우 필요했었는데, 이는 평소 비타민이라는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집을 풀면서 많이 늘렸더니 실제 계산속도가 많이 빨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어영역의 경우 20분 시간이 주어졌을 때 20문제를 거의 제시시간 안에 풀었으며, 수리영역의 경우 15~6문제를 풀었고 PAT의 경우 오답감점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답안에 잘 나오지 않았던 답으로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공간영역의 경우 PAT 시중 문제집을 많이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풀어야 하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이 상식영역이 출제되었을 때, 회사의 어떤상황을 문제로 주고 이중 가장 알맞은 행동은?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의 경우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환경이면 환경에 맞는 답안, 시간절감이 목적이라면 시간과 가장 관련된 답안을 체크했던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설비/기술의 인적성 검사의 경우 한국어 문제나 회사상식 관련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면접후기

1차 면접의 경우 인천 송도에서 실시하였으며 2차 면접의 경우 강남 포스코빌딩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이른 시간에 집합하기 때문에 전날 올라와서 숙식을 해결한 후 이동할 것인지, 당일 새벽차를 타고 올라와 바로 이동할 것인지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1,2차 면접 당시 KTX를 타고 올라와서 아침 일찍부터 면접을 보았는데 특히 1차면접 시 총 6개의 면접전형을 진행하여야 했는데 컨디션이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전날에 올라와서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1차 면접

인천 송도 포스코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집합하여 면접이 진행됩니다. 한 조당 7~8명이 총 13개조가 편성이 되었으며 1층 연회실에 모여 각 조별로 따로 원형책상에 앉게 됩니다. 이동 및 식사시간 포함하여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항상 1박 2일로 진행되었던 만큼 컨디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과나 음료는 충분히 제공되며 먹고 마시는데 눈치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이 필요하다면 챙겨 드셔도 좋습니다.

면접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 분석발표(AP), 인성면접(ST1), 직무면접(ST2), 그룹활동(GD), 한국사 및 혁신의 용광로 에세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석발표의 경우 설비/기술 면접에는 총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비즈니스 CASE 분석안을 40분간 읽고 약 4분간 발표하며 6분간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 하반기의 경우에는 **석탄채굴기의 채굴하는 부분의 결함이 생겨 환경, 경제, 안전, 가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발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각 CASE 별로 장, 단점이 존재하고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측면에 가장 큰 초점을 두어야 할지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석발표 시 A4용지 한 장에 다 정리하여 포인터로 비추며 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정리하는 습관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A4용지 한 장을 4부분으로 나누어 발표문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무면접의 경우 두 분의 면접관께서 3명을 원형 책상에 앉아서 전공에 관해 토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개념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도 물어보시기에 평소 전공측면에서 이해도가 높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질문에 대해 옆 지원자의 생각도 물어보기에, 옆 지원자의 생각도 동조하며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르는 부분은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매우 좋게 보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공의 어떤 파트가 가장 자신있냐고 물어보시고 저는 4대 역학이 가장 자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아 강점을 살려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

- SS커브
- 모어원
- 뉴턴의 3법칙
- 부력
- 축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
- 베어링 측면
- 비파괴 검사
- 베르누이 법칙
- 단면계수

세 번째로 인성면접은 2:3 면접으로써 면접관 두 분께서 미리 준비된 질문들 중 몇 개를 골라 질문하고 미리 봐둔 자소서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징은 미리 준비된 질문들의 경우 인재상에 기반된 질문들이

기 때문에 자소서 항목들이 그대로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인재상에 맞는 대답을 바라는 질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경우 처음 분위기는 편하게 인성면접을 실시하였지만, 저의 대답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꼬리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서를 회사의 관심도와 더불어 작성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그룹면접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포스코의 인재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업시민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피피티 4장 발표 10분에 해당하는 분량을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면접 중간중간 마다 조원들이 다른 면접을 보러가고, 다 같이 회의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원들마다 정보전달을 명확히 하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사원님이 한 분이 같이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선배사원님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더욱 점수를 많이 주는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어 및 혁신의 용광로 에세이의 경우, 평소 본인의 한국어 역량을 체크하고, 사회 이슈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용광로 책을 읽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자이지만 확인하는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한국어 정리를 잘 해두는 습관과 그 해년도에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하여 글로 쓰는 연습을 한다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2차 면접

서울 본사에서 진행한 2차 임원면접은 매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경우 군대를 어디로 갔다 왔년부터 시작하여 군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포스코에 오고 싶은 절실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공통질문을 주셨는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속마음을 들여보고 싶은 임원님들의 마음이 조금 담겨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원면접의 경우 3:3 이였고 처음부터 임원분들이라 너무 막막하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아저씨들과 포스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인생에 대해 어필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인드컨트롤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 세 분과 매우 가까이 위치하여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대의 표정이나 눈이 잘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분여간의 면접시간동안 항상 웃고 시선이 자신을 향하면 바로 아이컨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으며, 마스크를 썼음에도 웃음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트너가 답변하는 와중에도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파트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체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혁신의 용광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저의 경우엔 포스코의 가치 삼각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저는 은의식이라 대답했는데 본인이 국가를 위해 은의식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하셨을 때 봉사활동 273시간 한 것을 어필하며 사람들에게 조그만 도움을 계속해서 나눠주며 거창한 것은 하지 못해도 변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사자격증이 없었는데, 기사자격증 없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저는 평소애 성실하게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 왔는데, 취업

준비로 인해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자격증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보충하기 위해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즉, 제 상황에 맞게 강점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물어본 질문

- 자기소개
- 군대 어디 갔다 왔는지
- 포스코에 꼭 오고싶은 절실한 이유
- 시간과 돈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직장일이 생겼는데 어디까지 나갈 수 있나?
- 기사자격증 관련 질문
- 필리핀 봉사활동 273시간
- 포스코 혁신의 용광로 맘에 드는점 ->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 마지막 할 말

다. TIP

그룹 면접 때도 그러고 임원 면접 전에도 저는 주위 면접자들과 억지로라도 말을 건넬었던 것 같습니다. 입을 푸는 효과,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 정보공유의 장점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어디서 왔는지부터 물어보며 대화를 했고 혹여 면접질문으로 사교성 관련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이 분은 어디서 왔고 저분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면접 전 대화를 통해서 알았다. 녀석 좋은 것이 나의 장점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항상 준비했었습니다.